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삼시세끼 계란으로 어르신 건강 지켜요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11일 어르신들에게 계란에 대한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계란 요리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노년층이 가진 계란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계란을 통해 노년층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계란 요리교실'을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 20여명은 먼저 '삼시세끼 계란으로 지키는 어르신 건강'을 주제로 노년층 건강에 좋은 계란의 효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어르신 계란 요리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양계농협

홍콩수출계란 안전성 홍보행사 실시



한국양계농협(조합장 김인배)은 지난 7일 홍콩에 위치한 이온(AEON) 슈퍼마켓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이준원 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계란의 홍콩수출 재개에 따라 홍콩시민들을 상대로 한국계란 요리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양계농협은 농협계란 8톤(24만 개)을 수출 재개하여 홍콩내 이온(AEON)슈퍼마켓을 시작으로 웰컴(Wellcome), 파킨샵(Parkn Shop)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홍콩내 판매점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를 통하여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16년 한-중동국가 동물용의약품 워크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4월 25일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2016년 한-중동 동물용의약품 워크숍'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동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2개국의 동물약품 정부 관계관 4명(각 국 2명)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산업 전반을 이해시키고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중동 2개국 동물용의약품 관계관들은 동물약품 국가검정절차 및 제품의 국내 수입절차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및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가금질병 대응기술 향상을 위한 민·관·학 합동 세미나 개최

검역본부는 지난 12일 김천소재 검역본부 대강당



에서 민·관·학 합동 연구모임인 '한국가금질병연구회'와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가금산업에서의 현안 질병 대응 기술」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농무부 스웨인(David Swayne) 박사와 이동훈 박사의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백신연구와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결과, 중국 농업과학원 리(Li Yanbing) 박사의 중국내 HPAI 역학과 방제대책, 임상수의사인 최동명 원장의 계두와 전염성후두기 관염의 감별진단,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옥미 박사의 전염성코라이자 야외 발생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농촌진흥청

한국형 축산 스마트팜 모델 농가서 검증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4월 21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 축사 모델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스마트축사 모델 적용농가 5곳을 선정하고,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축산 스마트팜 기술 보급에 앞서 농가실증시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산란계(장성농장), 육계(무향농장)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안락사 장비 개발



농촌진흥청은 실험동물이나 질병에 걸린 가축의 인도적 안락사를 위해 동물복지에 부합

하는 장비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질소가스를 거품형태로 변형해 동물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안락사용 거품생성 장비'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이 장비는 거품 안에 98%의 질소가스를 모을 수 있고 6시간 이상 거품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질소가스 거품에 노출된 동물은 고통 없이 20초 내 의식이 없어지며(마취), 의식 소실 뒤에도 지속적인 호흡을 통해 1분 안에 무산소증(Anoxia)에 의해 안락사 한다. 가스 손실을 막기 위해 작업공간을 완전히 밀폐한 뒤 가능했던 이전 이산화탄소 방법에 비해 밀폐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거품을 채운 후에는 연속적인 처리가 가능해 작업 인원(10명→2명)과 시간(1시간 이상→10분 이내)을 단축할 수 있다. 고통이 적기 때문에 동물의 분비물(체액) 배출이 줄고, 작업자의 복지 측면에서도 처리과정이 노출되지 않고 인체에도 안전해 유리하다. 농촌진흥청은 이 장비를 특허출원하고 기술이전을 완료한 뒤, 구제역 감염 가축과 실험동물 대상의 현장적용평가를 마쳤다. 지침서 등으로 장비 소개를 하면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금연구소 신설로 산업발전 견인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금과를 가금연구소로 직제 개편하고 신제품 개발과 친환경 첨단사양



기술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0일 축산자원개발부(충남 천안) 2동에서 가금연구단지 이전 추진경과 보고와 함께 현판식을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4년 가금과(충남 천안)의 강원도 평창 이전이 결정된 이후, 2015년 1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구동과 축사 부지선정,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이전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현재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가금연구소는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3리에 종합연구동과 닭·오리 신품종 개발, 친환경 사양기법 개발 등을 수행할 가금연구 현장시설을 완공하고 올해 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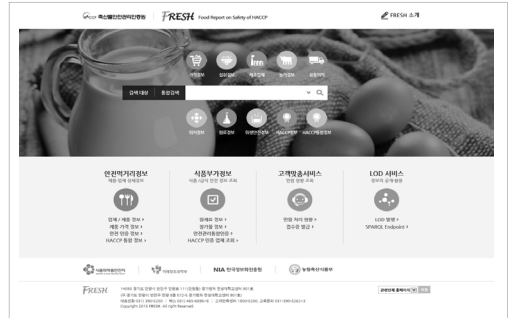
닭 면역력 높이는 유전자 발현 양상 찾아

농촌진흥청은 포유류 등에서 항균 기능을 하는 카테리시딘(Cathelicidin) 유전자의 발현 원리를 닭에서 처음으로 찾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닭의 골수세포와 섬유아세포에서 카테리시딘 유전자 3종(CAMP, CATH3, CATHB1)의 발현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닭의 카테리시딘 유전자들은 섬유아세포보다 골수세포에서 최소 2배 이상 높게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리시딘 유전자를 발현 조절(Promoter)하는 영역에 결합하는 단백질(전사인자)도 섬유아세포보다 골수세포에서 높게 발현했다. 사람과 생쥐, 닭의 카테리시딘 유전자 발현 조절 영역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닭의 카테리시딘만 특정한 전사인자(HS1)와 결합

하는 위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 원스톱 검색 및 HACCP e-기준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16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제에 'LOD기반의 HACCP인증 안전먹거리 연계통합 DB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4월 22일 밝혔다. 인증원은 본 사업을 통해 9개 기관 30종 700만 건의 식품안전 데이터를 융·복합DB로 구축하고 안전정보를 가공하여 FRESH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원스톱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HACCP 인증관련 「e-기준서 서비스」를 개발하여 HACCP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알가공업 HACCP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



인증원은 지난 4월 27일 대전소재 중부지원 교육

장에서 전국 알가공업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알가공업 HACCP 활성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 1일부터 알가공업 HACCP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할 업체가 HACCP 준비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정부 3.0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



인증원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국민 안전정보시스템(FRESH) DB 구축사업'과 같이 소비자에 먹거리 안전정보 제공 기반을 조성하였고, 고수요·고가치 데이터를 DB화하여 개방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알가공업 HACCP 의무화, 정부3.0 맞춤형 지원으로 100% 달성

인증원이 올해 12월 1일부로 적용되는 알가공업(계란) HACCP 의무화 1단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인 알가공업의 위생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알가공업 제조업체의 HACCP 의무화 적용 시기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 '16년 12월 1일부터, 그 외의 알가공장에는 '17년 12월 1일부터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전문지 기자단 팸투어



인증원은 지난 17일 HACCP 이해도 제고 및 알가공업 의무화 관련 현황 소개 등을 위해 전문지 기자단 팸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날 팸투어는 (주)풍림푸드(알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인증업체)에서 진행되었으며 업체 소개 및 사업 현황과 현장 견학을 하였으며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자간담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 이하 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1일 세종시 아름동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축산전문 언론매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의 목표인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정축산물 공급을 위한 최고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역·위생·검역업무의 효율성 강

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직원 복지수준 향상 등 발전방향을 밝혔다.

임금피크제 적용직원 간담회 실시



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7일 향후 3년 이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에게 대해 그간의 조직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노고를 치하고, 노년기 준비를 위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

강원도 축산환경 개선교육 순회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과 강원도청은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약 900여명의 강원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환경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축분뇨처리, 축사 약취 저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축산농가가 받

시 알아야할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소통과 협업의 「축산환경 개선」 업무협약 체결



관리원은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구상’에 발맞추어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축산환경지원기관(3개)과 축산생산자단체(7개)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축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0년 이후 연평균 4.7% 수준의 높은 성장을 보여왔으나, 그간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약취 등 축산환경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업무협약 체결 지원기관은 대한양계협회를 비롯한 10개 기관 및 단체이다.

대한수의사회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전시·후원 설명회 개최

전세계 수의사들의 최대 행사로 ‘수의계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33rd World Veterinary Congress)의 전시·후원설명회가 지난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수의사 약 4천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예정인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화두인 One Health(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하나)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의 발전을 논할 수 있도록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